

사상의학의 이론상 토대는 장중경의 ‘상한론’

(張仲景 150~219)

글 | 박성래 _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오늘날 한국의 한의학은 허준의 ‘동의보감’과 이제마의 ‘동
의수세보원’을 가장 대표적 고전으로 꼽는다. 이 가운데 특
히 이제마(1838~1900)가 내세운 사상의학은 아주 유명할 뿐 아니
라 많은 한의사들이 그의 이론을 연구하고 또 따르는 것으로 보인
다. 사상의학은 사람의 체질 구성을 태양·태음·소양·소음의 넷
으로 분류하고 체질에 따라 서로 다른 진단과 치료를 꾀하는 의학
이다. 그런데 이 사상의학의 근본을 찾아 오르다 보면 ‘주역’을 떠
올리기 십상이지만, 그것을 의학상의 이론으로 정립한 원조를 찾는
다면 1800년 전 후한 시대의 장중경(張仲景)을 꼽을 수 있다.

전염병 창궐하자 관직 버리고 의학연구 정진

장중경(150~219)은 이름이 원래 장기지만, 대체로 그의 자였던
‘중경’이 이름처럼 되어, 거의 ‘장중경’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의 이름은 장중경으로
더 잘 통한다. 장중경은 후한 말기(기원 150년 쯤)에 난양에서 태어
났다. 지금으로 치면 중국 허난성의 난양시다.

그의 생애 기간은 중국 역사상 전쟁과 질병이 크게 번졌던 그런
고약한 시기로도 꼽힌다. 그의 집안사람들 약 2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전염병 등으로 사망했는데, 이들 사망자의 70%는 상한증이였
다고 그는 회고하고 있다. 196년부터 220년 사이의 일이라니, 장중
경이 50전후 나이 때의 일이다. 장중경의 생애에 대해서는 영제 임
금 때(168~189)에는 장사태수를 역임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기록에 대해서는 이견도 없지 않아서 그가 과연 지방관의 자리(태
수)에 있었든지는 분명하지 않다. 잦은 전쟁으로 천하가 시끄러운
시기에 관직에 있었던 장중경은 당시 정치가 부패한데다 전염병까

지 유행하여 자신의 친척들이 수없이 병으로 죽는 것을 보고, 벼슬
을 버리고 의학연구에 정진하였다. 그는 고향의 의학자 장백조를
스승으로 따르며 의학을 공부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장중경이 그
의 스승을 뛰어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혼란기에 사람들은 의사를 믿지 않고, 점쟁이나 곳에 기대는 풍
조가 강했다. 그는 의사들이 너무 건성건성 환자를 보기 때문이라
면서 스스로는 아주 열심히 환자들을 살피고 연구하는 태도를 가졌
다. 먼저 환자의 기색을 잘 살피고, 소리 내는 것도 잘 들어 보고,
물론 병자의 느낌 등을 잘 물어본다. 맥을 짚어 보고 병의 진행 상
태를 조사한 다음 진단을 내린다. 이렇게 면밀한 의료행위를 거듭
해 인근에 명성을 떨쳤고, 그것이 그의 이름을 후세에 ‘의성(醫聖)
’으로까지 남기게 된 셈이다.

유명한 일화로는 이런 전설이 남아 있기도 하다. 그는 수무현에
서 의사 노릇을 했는데, 20세 남짓의 왕찬이란 청년을 본 일이 있
다. 그는 왕찬이 병색인 것을 보고, “자네 지금 이미 병이 들어있군.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당장 오석탕을 복용하면 혹시 병의 뿌
리를 뽑을 수도 있을 것 같네. 만약 그리 하지 않는다면 40세 전후
가 되면 눈썹이 모두 빠지고 의사로서도 고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생명의 위험이 있을 걸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이 의사
가 제 자랑을 하려고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얼마 후 장중경은 이 청년을 다시 만나 처방한 대로 약을
먹고 있는지 물었다. 그 청년은 복용했노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기
색을 살핀 장중경은 “자네 모양을 보니 약을 먹지 않은 것이 확실
하군. 왜 자네는 의사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명을 경시하는가?”라
고 힐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괜찮아 보이던 왕찬은 40세가 되던

해에 정말로 눈썹이 빠지더니 반년 뒤 사망했다. 당시 사람들은 그가 마풍병에 걸렸었다고 짐작했다. 이는 오랜 잠복기간을 가진 전염성 질환이다. 쉽게 진단하기도 어렵지만, 고치기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던 질환이었다.

임상경험에 옛 의학서적 참고해 '상한잡병론' 저술

장중경이 '상한론'이라는 명저를 후세에 남기게 된 것은 그렇게 그가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이미 그 전부터 전해지던 의학서를 통달했던 때문이다. 그의 '상한론'이 나오기 직전의 중국에는 이미 여러 가지 의학서가 나와 있었다고 전해진다. '한서' 예문지에는 한나라 때까지 이미 중국에서 나와 있었던 대표적 의학서적으로 '의경 7가'를 기록하고 있다. 약 2천년 전 한나라 때 이미 대표적인 의서에 7가지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것들 이름은 '황제내경', '황제외경', '편작내경', '편작외경', '백씨내경', '백씨외경', '방편' 등이다. 이 가운데 '황제내경'만이 오늘까지 남아 있고 다른 것들은 모두 사라졌다.

분명히 장중경 당시에는 이런 책들이 모두 있었고, 그는 이런 책들을 종합하고 자신의 의사로서의 경험을 덧붙여 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의 기록을 보면 자신이 '소문', '팔십일난', '음양대론' 등을 연구에 사용했다고 밝힌 부분도 있다. 이런 옛 서적을 부지런히 참고하고 널리 여러 처방 등을 찾아내어 지은 책이 '상한잡병론'이라는 것이다. 당시 상한이란 열을 내면서 갑자기 시작되는 질병을 일반적으로 가리킨 표현이었다. '소문' 열론편을 보면 "열병이란 것은 무릇 상한으로 생긴다"는 표현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발열성 전염병, 즉 지금으로 치면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등은 모두 여기 속한다.

원래 '상한잡병론' 16권은 전란 틈에 제대로 계승되지는 못했던 것을 서진의 태의 왕숙화(210~285)가 정리해 남기어 후세에 전한 것이다. 마치 친 제자인 것처럼 왕숙화는 장중경의 책을 잘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 '상한잡병론'은 2가지 책으로 분리된다. '상한론'과 '금궤옥함요략방'의 둘이 되어 남은 것이다. 앞의 책은 상한, 뒤의 것은 잡병으로 분류정리 되었다는 것이다. 그랬던 것이 북송 중기에는 다시 정리되어 '상한론' 10권, '금궤옥함경' 8권, '금궤요략방' 3권이 되었다. 두번째 것은 널리 보급되지 못했으나, 첫째와 셋째는 아주 널리 퍼졌고 지금까지 남아 있다.

장중경의 저작은 '상한잡병론'만이 아니었다는 설도 있다. '요부인방' 2권, '오장론' 1권, '구치론' 1권 등도 그의 저작이었다고



전해지기도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책들은 아예 후세에 남아있지 않다. 그 밖에도 이름만으로 전해지는 경우로는 '황소약방' 25권, '변상한' 10권, '요상한신험방' 1권, '평병요방' 1권 등이 있다.

6가지 체질로 사람 구분해 치료법 제시

'상한론'은 6경을 변증하고 외감열병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금궤요략'은 장부변증을 통해 각종 잡병을 다룬다는 일반적 설명도 있다. 요컨대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을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해 가는 상태를 분류하여 그에 맞는 치료 원칙이나 처방과 응용을 서술한 경험의학서라 할 수 있다. 여기 등장하는 여러 가지 구성 가운데에는 6경, 8강, 4진, 8법 같은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질병에 대한 '변증론치'를 하는 것인데, 팔강변증과 육경론치라 하기도 한다. 8강 또는 8강령은 음, 양, 표, 리, 한, 열, 허, 실을 말하며, 보다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복잡하기 마련인 중세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이를 다시 음양을 기준삼아 구분하여 한증, 허증, 이증은 음병으로 보고, 반대로 열증, 실증, 표증은 양병으로 본다. 여기 부수적으로 진단을 위한 방법 4진이 있다.

치료에는 6경이 기준이 된다. 장중경은 사람을 체질 등에 따라 6가지로 나눴는데, 3양경(태양, 양명, 소양)과 3음경(태음, 소음, 궤음)이다. 치료 방법상으로는 땀을 내게 하고, 토하게 하며, 배설, 소화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하여 8법(한, 토, 하, 화, 온, 청, 보, 소)을 말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육경'이 바로 우리나라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이 주장한 '사상'과 연결되는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㉓